

# 지방소멸 대응... 전남 '지역활력타운' 2곳 유치

곡성·구례에 통합주거단지 조성 은퇴자 등에 주거·복지 등 지원 커뮤니티·체육센터 등 집약 설치 "지역 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

국토교통부 주관 202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국 10개소 가운데 곡성 '활명수' 지구, 구례 '초록과 푸름 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 등 전남지역 2개 지구가 포함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바라는 은퇴자와 귀농·

귀촌 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번에 선정된 곡성 '활명수' 지구는 총 사업비 427억원(국비 104억원)을 들여 삼기면 괴소리 2만9000㎡ 부지에 주거 90세대(타운하우스 16·청년공동주택 74),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테마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구례 '초록과 푸름 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에는 총사업비 551억원(국비 64억원)을 들여, 구례읍 봉서리 7만8000㎡ 부지에 입주 수위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86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집약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기존 주민과 입주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가 등을 배치해 초기에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개 지역은 인근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일자리창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제공받을 수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곡성군, 구례군과 함께 지난 2월부터 특화사업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타당성, 경제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인구를 유입할 이주자 수요 중심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교통부 평가에 적극

대응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는 국토부 공모 시범사업인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도 공을 들이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호규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선정된 2개 지구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로, 향후 조성될 생활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 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광주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 지원

"취약지역 주민 적극 가입을"

광주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령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

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시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빛고을50+일자리 사업 발대식**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유영용 빛고을50+센터장과 50+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1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빛고을50+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0+일자리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장년층 퇴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및 사업봉사에 성공적인 인생 3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건호 기자

## "5·18 북한군 침투는 가짜뉴스라 배웠어요"

시, 5·18 왜곡 게임 제보 초등생 표창 교육청, 부산 초교 5·18 꾸러미 전달

"학교에서 5·18 북한군 침투는 가짜뉴스라고 배웠는데 그런 종류의 게임이 있어 제보했으며 지금은 삭제돼 (마음이) 편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인터넷 게임을 발견해 삭제 조치에 이르게 한 부산의 한 초등학생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로 초대해 '감사 표창'을 수여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광주 서구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5·18 왜곡·편향 게임을 발견하고 제보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이호진(12)군에게 감사 표창을 전달했다. 고려인마을가족카페도 장학금을 이 군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표창을 받은 이군은 "역사게임을 찾던 중 '그날의 광주'가 있어서 접속했었다"며 "당시 30~40명이 모여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 침투, 시민이 시민군을 죽이고 시민폭동으로 묘사돼 있어 충격이었



5·18 역사 왜곡 게임을 제보해 삭제 조치에 이르게 한 부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이호진(12)군에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표창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다"고 말했다.

이군은 또 "학교에서 배운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으며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는데 게임과 달리 제보를 하게 됐다"며 "제보고 나뉘는 때는 무서웠는데 게임이 삭제되고 영구제명 당했다고 들으니 지금은 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게임 제보에 이어 자행된 2차 가

해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군은 "게임상 캐릭터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등장하는 성폭력 게임이 만들어져 기분이 나빴다"며 "그 게임도 사라져 안심이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왜곡 게임 제보 사실이 주변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알려지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장하다'고 격려를 많이 해줬다"며 "광주시청에서 초청을 받아 광주를 처음오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군은 이날 감사표창에 이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상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또 이 군이 다니는 학교에 '5·18 교육자료 꾸러미'와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5·18정신을 상징하는 '5월 주먹빵'을 전달한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편향한 게임을 만든 제작자 등을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제8기 예비 명품강소기업 7곳 모집

광주시는 제8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을 6월12일까지 모집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업력 3년 이상 제조업과 지식서비스기업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종류를 앞두고 있는 기간연장 기업을 포함해 총 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제8기 예비 명품강소기업은 이에

스지(ESG) 경영 지원,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우대 등 기업 성장목표와 수준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광주시는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도 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접수는 광주테크노파크(062-602-7222.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를 참조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 전남공공배달앱 '떡깨비', 5%페이백 이벤트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에서 13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5%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한다.

페이백 이벤트는 떡깨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문을 완료한 고객에게 최대 5%(2000원 한도) 떡깨비 포인트를 페이백으로 선착순 지급하는 이벤트다.

결제일 기준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주문 건수 1회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할 때마다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땀겨요를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 첫 주문 5000원 할인쿠폰 및 더블할인쿠폰, 우수·신규 가맹점 및 공짜배달 가맹점 대상 20만원 상당의 지원금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으로 재탄생

광주시·추진협, 사업 합의 지하차도·통합관리동 신설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친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협의체와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 합의를 완료, 본격 추진한다.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은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을 국립5·18민주묘지와 동격의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18기념재단, 5·18공법단체, 광주·전남추모연대, 시민단체연합회, 광주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향과 기본구상(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관리동 위치, 관리사무소 철거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광주시에서 추진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는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지하차도 신설 △지하차도 계획을 고려한 통합관리동 위치 조정 △진출입 동선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병하 기자